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임 정 하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토착적 관점에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척도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한 후, 398명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다. 문항양호도 검증 및 공통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선택한 문항은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30개,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32개였다. 이들 문항 변별도 지수의 범위는 Cramer의 V .29에서 .76이었으며,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국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각각에서 불신, 가르침, 존중, 관심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반분신뢰도, 내적일치도, 3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고하였으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의 개념 및 특성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적 양육행동, 부모의 역할, 청소년, 척도개발

I. 서 론

시대나 문화를 막론하고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며 사회화시키는 일차적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어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나 부모는 자녀의 발달 초기부터 자녀와 특별한 유대감을 발달시키고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시키는 데 바람직한 방식이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개인이 속한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이상적인 부모 역할이나 양육행동에 있어 요구되는 규범은 개인이 속한 문화와 전통, 사회적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육행동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서구의 백인 중류층 가정을 대상으로 검증된 양육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민족의 양육에 이를 적용하고 그 보편성을 살펴보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인 서구 사회의 양육에 대한 개념이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의 양육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수향, 1996; Chao, 1994; Kelley & Tseng, 1992 등). 이는 자녀양육의 목표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문화집단마다 차이가 있고, 동일한 양육 행동도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 자녀에게 다른 의미로 지각될 수 있으며(Spencer & Dornbusch, 1990)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도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특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할 때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양육행동에 관한 초기 연구들(김재은, 1974; 이원영, 1983 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서구의 양육행동 이론이나 모형에 입각하여 자녀양육행동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자녀양육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서구의 양육행동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성, 인내, 희생, 헌신, 관대, 믿음 등의 개념이나 자녀의 인격형성을 위한 가정교육, 집단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타인배려에 대한 가르침 등은 한국의 자녀양육방식을 규명하는 데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방희정, 2000; 유가효, 1995; 정현희, 1995). 즉,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류정현, 2002; 정옥분 등, 1996; 최상진과 류승화, 1995; 최수향, 1996)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토착적인 개념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특징적 현상으로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원리, 부자유친(父子有親)의 성정, 측은지심(惻隱之心)에 의한 부모자녀 간의 강한 동일체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부모와 자녀를 ‘가족’이라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보고 자녀를 부모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자녀양육방식에 따른 것으로 한국적인 양육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1) 교신저자 : 임정하, 뉴욕주립대학(UB, Dept. of Learning & Instruction) 박사후 연구원, E-mail : jhlim@korea.ackr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적 자녀양육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국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부모 역할의 차이 및 상호보완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전통 양육에서 부모는 ‘엄부자모(嚴父慈母)’로 표현되는 이분화된 기능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Kim과 Choi(1994)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은 엄격함과 결부되는 반면, 어머니 헌신은 관대함 및 자애로움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방희정(2000) 또한 자녀는 가장인 아버지로부터는 사회적 안정을, 어머니로부터는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로 한번에 응답을 하도록 하거나(박영신과 김의철, 1998; 이영미, 1992 등)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조사한 후 부모의 양육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원유미, 1999 등) 기존의 연구들은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상당한 제한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한 자료와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분리하여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초기의 많은 연구들(박성연, 1989; 이원영, 1983; 한중혜, 1980; Schaefer, 1965a 등)은 주로 아동기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나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도 주로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맥락적 변화 등 발달 변화와 함께 부모의 양육행동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Eccles et al, 1993)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과 점차 분리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Hill, 1987; Paikoff & Brooks-Gunn, 1991). 국내에서도 최근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아동기 자녀의 경우와 분리하여 연구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박순화, 2000; 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등)은 대부분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발된 구성요인이나 측정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므로, 자녀의 발달단계 중 우선적으로 청소년기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양육행동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녀가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한국적 양육행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국적 양육행동이라 함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일반적 행동과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가정에서부터 현대 가정에까지 이어져 오는 양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지각을 바탕으로 한국 부모의 양육행동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한국적 양육행동의 특성을 규명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그 주변 도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2개씩을 유의표집한 후, 이들 4개 학교 12학급의 남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모두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편부모 가정의 자료나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 등을 제외하고 3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56%, 여학생 44%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12세 7.6%, 13세 34.6%, 15세 3.7%, 16세 30.1%, 17세 3.4%, 18세 20.7%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14.9세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졸 47.6%, 대졸 38.0%, 중졸이하 6.8%, 대학원졸 이상 6.5%, 무응답 0.5%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 58.1%, 대학졸 24.6%, 중졸이하 12.6%, 대학원졸 이상 3.4%, 무응답 0.5%였다. 또한 부모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판매·서비스직 31.2%, 사무직 29.3%, 전문기술직 14.4%, 관리·전문직 14.7%, 기타 10.9%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54.8%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 23.0%, 사무직 8.1%, 전문기술직 6.0%, 관리·전문직 2.9%, 기타 4.2%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구성

먼저 정옥분 등(1996)이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한 ‘부자십이지덕목(父慈十二之德目)’을 바탕으로 각 덕목에 해당하는 기본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부자십이지덕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지켜야 할 도리를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덕목은 다음과 같다. 즉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먼저 스스로를 닦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수신(修身)’, 부모가 올바르게 행하여 자식에게 보임으로써 가르친다는 ‘모범(模範)’,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시킬 ‘책임(責任)’, 자식을 가르칠 때 마음을 다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정성(精誠)’, 자식을 위해 부모의 부귀영화나 건강, 생명까지도 바치려는 마음인 ‘희생(犧牲)’, 자식을 기르고 가르칠 때 서둘러 효과를 보고자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忍耐)’, 자녀에 대한 엄격함과 자애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 ‘엄친(嚴親)’,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존중(尊重)’, 자녀에게 마음과 주의를 기울이고 각별히 보살피는 ‘관심(關心)’, 자녀에게 사람의 도리를 알게 하는 ‘가르침’, 자녀의 부족함과 실수를 너그럽이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올바르게 행하도록 깨닫게 하는 ‘관대(寬大)’, 끝으로 자녀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 예비문항 작성시 정옥분 등(1996)이 이들 덕목의 현대적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청소년기 부모의 부자(父慈)에 관한 가정교육 지침 문항도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관계, 가족 상호작용 등에 관한 일련의 연구 및 측정도구의 문항을 검토하여 앞서 작성한 기본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양육행동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 때 일부 문항은 기존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여 첨가하였고, 일

부 문항은 연구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첨가하였다.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예비문항은 100문항에서 시작하여 5명의 인간발달 전공 교수에게 내용 타당도 및 문장표현 방식 등을 검토 받는 과정을 거치며 몇 차례 보완되었고, 최종 10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106문항을 산출하는 데 근거한 이론적인 양육행동 구성개념은 수신, 모범, 책임, 정성, 희생, 인내, 엄친, 존중, 관심, 가르침, 관대, 믿음, 애정, 비난, 심리적 통제, 지나친 관여, 지나친 허용, 감독으로 총 18가지였다.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예비문항 질문지는 총 106문항이었고, 이들 각 문항에 대해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를 각각 따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동일 청소년이 106개의 공통 예비문항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응답과 어머니에 대한 응답을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다소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절차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로, 본 연구에 사용될 ‘한국적 양육행동 예비문항’ 질문지를 작성하여 2003년 6월 7일에서 6월 11일까지 해당 연령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사용해 보았다. 이 때 문항의 의미 전달 정도나 응답방식상의 어려움 등을 검토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3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430명에게 ‘한국적 양육행동 예비문항’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토록 한 후 수거하였다. 각 학교 교사들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 학생과 협조 교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답례품을 질문지와 함께 전달하였다. 질문지작성에는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회수율은 100%였으나, 회수된 질문지 중 편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10명), 질문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11명), 아버지에 대한 문항과 어머니에 대한 문항 각 106개를 모두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27명)를 제외한 나머지 382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청소년 382명의 자료 중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 자료는 총 380부였고,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는 총 374부였다. 덧붙여, 개발한 측정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한 지 3주 후에 중학교 2개 학급의 학생(46명)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자료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료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 상하위집단 각각 27%의 응답을 비교하기 위한 카이제곱 검증 값과 Cramer의 V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예비문항 분석에서 양호한 문항으로 나타난 것을 이용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원상관행렬을 검토하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측정치, 반영상관계수,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였다. 공통요인모형에서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 단일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고, 공통성의 초기값은 중다상관제곱치(SMC)를 사용하였으며 요인구조의 회전은 Varimax 방식으로 직각회전하였다. 요인분석 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해 각 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척도의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의 α ,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개발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에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공통요인분석에 한해서는 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문항의 양호도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예비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공통 106문항에 대한 응답을 아버지에 대한 자료와 어머니에 대한 자료로 분리하였다. 이들 각 자료에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버지에 대한 자료에서는 83문항이, 어머니에 대한 자료에서는 78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문항제거 내용은 아버지에 대한 응답자료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자료를 분리하여 아래 각각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행동 척도 예비문항 106개 중 평균이 너무 높은 문항(평균 4.3 이상) 2개, 상대도수분포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문항(한 번호에 60%이상 응답된 경우) 2개,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이 낮고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alpha = .9460$)가 높아지는 문항 21개,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문항변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의 문항 12개를 제거하였다. 몇몇 문항은 앞서 언급한 문항제거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의 경우에 위배되었으므로, 제거된 문항은 총 23개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선택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문항에서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Cramer의 V계수는 .29에서 .76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이 값이 클수록 문항변별도가 높는데 일반적 수용수준이 Cramer의 V .25임을 고려할 때, 본 척도의 문항 구성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행동 예비문항 106개 중 평균이 너무 높은 문항(평균 4.3 이상) 9개, 상대도수분포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문항(한 번호에 60%이상 응답된 경우) 2개,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이 낮고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alpha = .9427$)가 높아지는 문항 22개,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문항변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의 문항 13개를 제거하였다. 몇몇 문항은 앞서 언급한 문항제거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의 경우에 위배되었으므로, 제거된 문항은 총 28개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선택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문항에서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Cramer의 V계수는 .31에서 .72로 나타났으므로(표 2 참고) 본 척도의 문항 구성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선정

앞서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예비문항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잘 대표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공통요인을 파악하고 척도 문항의 수를 축소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는 아버지 척도와 어머니 척도 각각 동일한 106문항에서 출발하였으나, 문항 양호도 검증 결과 아버지 척도와 어머니 척도 각각에서 양호한 문항과 그 수가 다르게 선정되었다. 따라서 요인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아버지 척도의 경우 83문항, 어머니 척도의 경우 78문항이었으며, 요인분석결과 선정된 최종 문항의 수는 아버지 척도 30문항, 어머니 척도 32문항이다. 구체적인 분석과정과 문항 내용은 아래에 각각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행동 척도 예비문항을 이용한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83개 문항을 이용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요인과 4요인 사이, 6요인과 7요인 사이에서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누적분산비율을 바탕으로 보면 3요인까지에서 전체분산의 66%를, 6요인까지에서 전체분산의 75%를 설명하였다. 공통요인분석에서 전체분산의 '75 85%가 설명되면 그 다음에 추가되는 비율이 지극히 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요인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기준(Golsuch, 1983, 이순목, 2000 재인용)과 스크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6으로 지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최대요인부하량이 .40미만인 문항과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제거 후, 5요인과 6요인에 문항 수가 각각 3개미만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1개의 요인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변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Thurstone, 1947, 이순목, 2000 재인용)을 참고하여 5요인과 6요인에 남은 문항을 제거하고, 나머지 53문항을 이용하여 요인의 수를 4개로 놓고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4개 요인으로 설명되는 공통설명분산은 87% 정도가 되었다. 분석 결과, 타요인과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최대요인부하량이 .45이하인 문항, 해석 차원에서 다른 문항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30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4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38.87%로 나타났다. 직각회전(Varimax) 후 산출된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4개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하며 자녀를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가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자녀를 못 미더워하는

표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문항양호도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 전체상 관	제거후 내적합치도	χ^2	변별도 지수
			1	2	3	4	5				
16	3.32	1.19	9.9	12.6	29.3	31.4	16.8	.29	.9458	31.9***	.44
18	3.81	1.17	4.8	10.9	18.6	29.7	36.1	.43	.9454	50.1***	.55
22	4.19	1.07	3.1	5.5	14.1	23.3	53.9	.26	.9458	17.4**	.32
23	4.11	.91	0.5	3.7	22.3	31.2	42.3	.32	.9457	34.8***	.46
27	3.45	1.10	6.6	10.0	34.0	30.9	18.5	.59	.9449	70.3***	.65
28	3.53	1.16	5.0	14.9	27.0	28.8	24.3	.51	.9451	64.4***	.62
29	3.78	1.11	3.4	10.2	23.8	30.1	32.5	.63	.9448	95.9***	.76
43	4.29	.89	1.0	3.7	12.3	31.2	51.8	.37	.9456	46.1***	.52
44	4.01	1.00	1.0	7.1	22.0	29.9	39.9	.44	.9454	61.8***	.61
49	3.24	1.27	11.5	16.8	27.7	23.8	20.2	.49	.9461	62.7***	.61
56	3.35	1.20	8.7	15.2	27.8	29.4	18.9	.24	.9459	21.9***	.36
58	3.03	1.36	16.8	21.3	23.2	19.2	19.5	.26	.9459	27.9***	.41
59	3.31	1.23	8.4	17.9	28.9	23.4	21.3	.56	.9449	78.7***	.69
62	3.33	1.08	6.0	13.1	38.8	26.2	15.7	.43	.9454	37.6***	.47
65	4.08	.94	1.0	4.5	20.7	33.1	40.7	.38	.9455	28.8***	.48
70	3.29	1.20	8.9	16.6	29.2	27.4	17.9	.55	.9450	66.7***	.63
71	3.02	1.37	14.9	26.7	20.9	16.8	20.7	.38	.9455	41.5***	.50
72	3.43	1.54	18.1	12.6	15.7	15.2	38.3	.38	.9455	33.4***	.45
77	3.56	1.18	5.8	13.7	24.7	30.3	25.5	.44	.9453	58.2***	.59
78	4.02	1.19	5.8	6.8	15.2	24.3	47.9	.37	.9455	51.5***	.55
82	3.90	1.08	2.4	8.4	24.4	26.8	38.1	.40	.9454	53.1***	.56
84	3.92	1.15	3.4	10.5	18.4	26.2	41.5	.26	.9459	13.7**	.29
85	3.65	1.29	7.6	11.8	19.4	30.7	30.4	.38	.9455	45.1***	.52
90	3.69	1.08	4.2	9.2	26.0	35.2	25.5	.59	.9449	69.0***	.64
91	3.98	1.10	4.2	5.2	20.4	28.3	41.9	.49	.9452	64.7***	.62
96	3.62	1.30	8.4	14.4	17.5	26.4	33.2	.37	.9455	41.5***	.50
98	3.38	1.25	9.4	16.8	20.7	32.3	20.7	.40	.9454	34.8***	.46
99	3.43	1.16	6.6	14.4	29.4	29.1	20.5	.25	.9459	18.3**	.33
103	3.07	1.33	15.5	20.7	23.1	22.8	17.8	.36	.9456	40.0***	.49
104	3.41	1.37	12.0	14.9	23.8	18.3	30.9	.49	.9451	71.2***	.65

** $p < .01$. *** $p < .001$.

† 문항번호는 본 조사에서 사용된 번호와 일치하나, 문항양호도 분석시 사용된 106개 문항 중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 선택된 30문항에 대해서만 분석결과를 기재함.

† 불신 요인 해당하는 문항(16, 18, 56, 58, 77, 78, 85, 91, 96, 98, 99번)은 응답을 역코딩한 후 산출한 수치임.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해당 요인을 ‘불신(믿지 못함, 못 미더움)’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녀의 의견이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과 가능성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과 관련되므로 ‘존중’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기초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는 등 인격교육과 관련되므로 ‘가르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자녀가 방과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있으며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등 자녀의 생활 및 행동과 관계된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와 관련되므로 ‘관심’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 4개요인 간의 상호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신 요인은 가르침 요인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관심 요인과의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나머지 요인들 간에는 상관관계수가 절대값 .42에서 .46사이의 값을 보여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행동 척도 예비문항을 이용한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78개 문항을 이용하여 공통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요인과 5요인 사이, 6요인과 7요인 사이, 7요인과 8요인 사이에서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누적분산비율을 바탕으로 보면 4요인까지에서 전체분산의 68%를, 6요인까지에서 전체분산의 75%를 설명하였다. 공통요인분석에서 전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문항양호도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 전체상관	제거후 내적합치도	χ^2	변별도 지수
			1	2	3	4	5				
7	3.83	1.15	5.5	6.9	21.4	31.1	35.1	.53	.9416	70.6***	.67
8	3.51	1.18	6.3	12.6	29.7	26.1	25.3	.53	.9416	58.3***	.61
15	3.28	1.16	7.7	18.2	28.5	29.6	16.1	.50	.9417	53.3***	.58
16	3.27	1.11	8.1	13.1	36.0	28.9	13.9	.26	.9425	14.7**	.31
17	4.08	.96	1.3	4.5	20.9	31.0	42.2	.50	.9418	60.2***	.62
18	3.83	1.14	5.1	7.7	20.8	31.7	34.7	.43	.9420	34.5***	.47
22	4.23	1.01	2.6	3.7	15.5	24.9	53.3	.25	.9425	23.7***	.39
23	4.16	.94	1.3	3.7	18.3	31.4	45.3	.39	.9421	41.2***	.51
27	3.50	1.09	5.5	10.5	31.8	32.6	19.5	.55	.9416	56.2***	.60
41	3.54	1.06	3.9	10.0	36.2	28.1	21.8	.34	.9422	31.1***	.45
43	4.37	.87	1.3	2.4	11.0	28.0	57.3	.37	.9422	38.2***	.49
44	4.05	1.00	1.3	6.3	20.8	29.5	42.1	.44	.9420	48.1***	.55
51	4.09	1.00	2.6	5.2	14.7	35.6	41.9	.46	.9419	56.3***	.60
52	3.37	1.31	10.7	17.3	20.4	27.2	24.3	.46	.9418	51.1***	.57
54	3.94	1.04	2.4	5.8	25.0	28.9	37.9	.62	.9413	76.7***	.70
56	3.23	1.21	10.5	17.1	27.6	29.1	15.7	.36	.9422	33.8***	.46
58	2.99	1.35	18.2	20.0	23.2	21.8	16.8	.27	.9426	17.7**	.34
64	3.91	1.09	3.1	7.1	23.9	27.0	38.8	.44	.9419	46.4***	.54
65	4.15	.93	0.8	4.2	19.7	29.7	45.5	.43	.9420	45.1***	.54
70	3.38	1.11	6.1	15.3	29.6	32.5	16.6	.56	.9415	54.2***	.59
74	3.42	1.33	10.8	15.8	21.1	25.1	27.2	.49	.9417	46.5***	.55
75	3.93	1.14	4.7	5.8	22.4	25.8	41.3	.59	.9414	80.8***	.72
77	3.56	1.16	6.1	12.4	24.8	32.7	24.0	.44	.9419	48.1***	.55
78	4.01	1.21	5.5	7.4	16.8	21.3	48.9	.38	.9421	48.9***	.56
82	3.86	1.04	1.6	8.9	25.1	30.4	34.0	.43	.9420	42.2***	.52
83	4.16	.94	0.8	5.2	17.1	31.2	45.7	.25	.9425	17.6**	.36
85	3.60	1.29	11.0	8.4	20.2	30.4	30.1	.43	.9420	40.6***	.51
91	3.98	1.13	4.7	6.8	16.2	30.4	41.9	.50	.9417	66.5***	.65
96	3.67	1.26	8.1	10.7	20.2	27.7	33.2	.39	.9421	37.8***	.49
99	3.06	1.25	12.6	22.0	27.7	22.0	15.7	.31	.9424	30.7***	.44
102	4.09	1.09	4.0	4.7	17.2	26.6	47.5	.61	.9414	80.9***	.72
105	3.83	1.23	6.1	11.1	16.3	27.4	39.2	.28	.9425	26.4***	.41

† 문항번호는 본 조사에서 사용된 번호와 일치하나, 문항양호도 분석시 사용된 106개 문항 중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 선택된 32문항에 대해서만 분석결과를 기재함.

† 불신 요인 해당하는 문항(16, 18, 56, 58, 77, 78, 85, 91, 96, 99, 102, 105번)은 응답을 역코딩한 후 산출한 수치임.

표 3.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최종문항의 요인 고유치 및 설명분산

예비문항번호 (최종문항번호)	문 항 내 용 <i>아버지는 . . .</i>	요인				h^2
		1	2	3	4	
98 (23)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일일이 잔소리 하신다.	.64	.20	-.07	.02	.46
99 (1)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내 생활에 너무 많이 관여하신다.	.60	.02	-.08	-.11	.38
56 (14)	내가 사소한 실수를 해도 핀잔을 주신다.	.59	.06	-.07	-.03	.35
78 (2)	다른 식구들 문제로 나를 탓하신다.	.58	.01	.13	.13	.37
18 (18)	나와 관련된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신다.	.58	.16	-.02	.06	.36
77 (16)	내 말이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신다.	.57	.12	.14	.10	.38
58 (7)	보통 내 또래 아이들이 흔히 하는 일도 내가 하면 못하게 하신다.	.57	.06	-.10	.03	.35
96 (8)	한 번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못하면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핀잔을 주신다.	.56	.18	-.05	.07	.35
91 (11)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믿지 못하신다.	.55	.21	.09	.20	.39
16 (17)	나에게 지나치게 훈계하신다.	.54	.08	-.03	.02	.30
85 (13)	내가 아버지 의견에 이견(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신다.	.53	.21	-.06	-.02	.33
27 (3)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실 때도 내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	.23	.62	.15	.10	.47
70 (6)	내가 어떤 일에 대해 화를 내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신다.	.18	.59	.07	.22	.43
28 (19)	내가 생각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 보라고 격려하신다.	.15	.57	.24	.08	.41
90 (20)	나와 관련된 규칙을 정하실 때 내 의견을 고려하신다.	.22	.57	.19	.15	.44
29 (29)	내가 실수를 해도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거라고 격려해 주신다.	.22	.54	.29	.13	.44
59 (28)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23	.54	.11	.25	.42
62 (22)	내가 흥분해 있을 때도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신다.	.05	.53	.12	-.01	.30
49 (24)	가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내 의견을 물어보신다.	.15	.47	.17	.16	.30
43 (9)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07	.21	.70	.10	.55
23 (12)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면 나를 나무라신다.	-.07	.14	.65	.04	.46
44 (4)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말씀하신다.	.02	.28	.59	.16	.45
65 (15)	내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게 하신다.	-.06	.26	.58	.22	.45
82 (5)	가족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을 돕도록 가르치신다.	-.02	.29	.50	.19	.36
22 (10)	내가 욕이나 거친 말을 쓰면 나무라신다.	.05	-.02	.49	.08	.25
84 (26)	웃을 단정히 입도록 이르신다.	-.14	.15	.46	.15	.28
103 (21)	내가 방과 후에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01	.09	.22	.55	.36
71 (25)	내 친구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02	.26	.18	.52	.36
104 (27)	내가 집에 혼자 있고 외출하시면 밖에서 나에게 전화를 하신다.	.14	.20	.31	.49	.40
72 (30)	나한테 이성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아신다.	.14	.13	.09	.49	.28
요인 분산		4.00	3.14	2.82	1.48	

체분산의 '75 85%'가 설명되면 그 다음에 추가되는 비율이 지극히 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요인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기준(Golsuch, 1983, 이순목, 2000 재인용)과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6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6으로 지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최대요인부하량이 .40미만인 문항과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제거 후, 5요인과 6요인에 문항 수가 각각 3개미만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1개의 요인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변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Thurstone, 1947, 이순목, 2000 재인용)을 참고하여, 5요인과 6요인에 남은 문항을 제거하고, 나머지 47문항을 이용하여 요인의 수를 4개로 놓고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4개 요인으로 설명되는 공통설명분산은 84% 정도였다. 분석 결과, 타요인과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최대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 해석 차원에서 다른 문항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32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4개 요인의 총설명변량은 37.68%로 나타났다. 직각회전(Varimax) 후 산출된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부하량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4개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12문항으로,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하고 관여하며 자녀의 뜻이 아닌 어머니의 뜻대로 자녀를 움직이려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행동은 어머니가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자녀를 못 미더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해당 요인을 '불신(믿지 못함, 못 미더움)'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9문항으로, 자녀에게 대인관계의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일상생활에서 사회 기초 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며 자녀에게 인격교육을 시키는 것과 관련되므로 '가르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6문항으로, 자녀를 정성으로 대하며 자녀의 하루일과 및 학교생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되므로 '관심'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자녀의 감정이나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자녀를 귀하게 대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존중'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4개요인 간 상호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신 요인은 가르침 요인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반면, 나머지 요인들 간에는 절대값 .34에서 .50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어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지 3주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여 하위요인별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양육행동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의 동질적인 개념을 평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척도의 총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이들 점수간의 관련성을 반분신뢰도를 산출해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표 5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의 경우, 검사-재검사 간의 하위요인별 상관계수가 .7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최종문항의 요인 고유치 및 설명분산

예비문항번호 (최종문항번호)	문항 내용 어머니는 . . .	요인				h^2
		1	2	3	4	
96 (8)	한 번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못하면 ‘그런 것도 못하냐고 평잔을 주신다.	.60	-.02	.05	.10	.38
91 (11)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믿지 못하신다.	.58	.09	.16	.15	.40
99 (1)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내 생활에 너무 많이 관여하신다.	.58	-.01	-.05	.07	.35
77 (16)	내 말이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신다.	.55	.11	.16	.06	.34
56 (14)	내가 사소한 실수를 해도 평잔을 주신다.	.55	-.03	.07	.07	.31
102 (29)	내 관심사를 무시하신다.	.53	.15	.22	.28	.43
58 (7)	보통 내 또래 아이들이 흔히 하는 일도 내가 하면 못하게 하신다.	.52	-.08	.02	.07	.29
78 (2)	다른 식구들 문제로 나를 탓하신다.	.51	.03	.07	.07	.27
85 (13)	내가 어머니 의견에 이견(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신다.	.50	-.03	.14	.16	.30
18 (18)	나와 관련된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신다.	.50	.05	.01	.27	.32
16 (17)	나에게 지나치게 훈계하신다.	.44	.01	.00	.11	.21
105 (23)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내가 어머니 말씀을 따를 때까지 나에게 말 을 걸지 않으신다.	.39	-.01	.08	.02	.16
43 (9)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말라고 가르치신다.	.02	.67	.08	.03	.45
44 (4)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라고 말씀하신다.	.06	.65	.08	.11	.46
23 (12)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면 나를 나 무라신다.	-.07	.60	.16	.12	.41
64 (28)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신다.	.07	.59	.19	.09	.40
65 (15)	내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게 하신다.	.00	.59	.17	.11	.39
82 (5)	가족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을 돕도록 가르치신다.	-.01	.48	.35	.08	.36
83 (31)	물자를 절약하라고 이르신다.	-.07	.47	.15	-.03	.25
22 (10)	내가 욕이나 거친 말을 쓰면 나무라신다.	-.03	.47	.02	.13	.24
41 (22)	이웃에 문제가 있다면 도와려고 하신다.	.11	.43	.07	.10	.21
52 (19)	내 하루일과에 대해 물으신다.	-.02	.28	.62	.12	.48
75 (21)	내가 어머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신다.	.28	.22	.62	.12	.52
54 (27)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29	.25	.59	.11	.50
74 (32)	나를 안아주시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신다.	.17	.13	.58	.13	.40
51 (24)	내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신다.	-.04	.22	.54	.23	.40
17 (25)	나를 위해서라면 힘들거나 불편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다.	.24	.23	.41	.19	.31
8 (26)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두 사람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 고 하신다.	.20	.16	.14	.60	.45
15 (30)	나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으셔도 일단은 참으신다.	.27	.17	.07	.56	.42
27 (3)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실 때도 내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	.25	.09	.21	.56	.43
70 (6)	내가 어떤 일에 대해 화를 내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신다.	.23	.11	.25	.53	.41
7 (20)	내가 왜 혼나는지 또는 어떤 일을 왜 하면 안되는지 설명하신다.	.16	.26	.19	.43	.32
요인 분산		3.84	3.29	2.49	1.94	

표 5.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Cronbach의 α	반분신뢰도
	(n=46)	(n=380)	(n=380)
불신	.74	.85	.85
존중	.78	.84	
가르침	.74	.81	
관심	.73	.68	

표 6.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Cronbach의 α	반분신뢰도
	(n=46)	(n=374)	(n=374)
불신	.71	.83	.85
가르침	.72	.81	
관심	.83	.80	
존중	.75	.77	

3 .78로 나타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내적합치도인 Cronbach의 α 계수도 .6
8 .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반분신뢰도 또한 .85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표 6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경우, 검사-재검사 간의 하위요인별 상관계수가 .7
1 .83으로 나타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내적합치도인 Cronbach의 α 계수도
.77 .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반분신뢰도 또한 .85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총점¹⁾과 하위요인별 점수와
의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타당도를 산출하였으며,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한국판 부모-자녀결합 형
태 검사’와의 관계를 분석해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였다. 한국판 부모-자녀결합 형태 검사는 Parker와
그의 동료들(1979)이 제작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청소년이 보고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24문항씩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4점 리커트식으로 답
하게 되어 있으며,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적 양육행
동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5개교를 유의표집하였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75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26일에서 9월
6일까지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470부를 수거하였다. 이들 중 편부모 가정의 경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398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1 양육행동의 총점을 산출할 때는 불신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합계를 내었음.

공통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4개의 하위요인과 총점간의 상관인 요인타당도는 불신 .55, 존중 .81, 가르침 .65, 관심 .79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부모-자녀결합 형태 검사(PBI)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불신 요인은 PBI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절대값 .53 .64로 나타났고, 존중 요인은 PBI의 애정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70으로, 자율성 존중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표 7.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와 PBI와의 상관관계 (n=398)

한국적 양육행동	PBI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
불신	-.53***	.53***	-.64***
존중	.70***	-.21***	.63***
가르침	.35***	.08	.16**
관심	.46***	.11*	.19***

* $p < .05$, ** $p < .01$, *** $p < .001$.

.63으로 나타나 기존의 척도에서 나타난 구성개념과 관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르침 요인과 관심 요인은 PBI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절대값 .08 .46으로 나타나 기존 양육행동 척도와 구분되는 구성개념임을 시사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공통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4개의 하위요인과 총점간의 상관인 요인타당도는 불신 .66, 가르침 .63, 관심 .80, 존중 .81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부모-자녀결합 형태 검사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불신 요인은 PBI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절대값 .51 .57로 나타났고 관심 요인은 PBI의 애정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68로 나타났으며, 존중 요인은 PBI의 애정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60으로 나타나 기존의 척도에서 나타난 구성개념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르침 요인은 PBI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절대값 .01 .44로 나타나 기존 양육행동 척도에서 다른 개념과 구분되는 구성개념임을 시사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적 양육행동을 구성하는 내재된 공통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행동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1요인 ‘불신’, 2요인 ‘존중’, 3요인 ‘가르침’, 4요인 ‘관심’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1요인 ‘불신’, 2요인 ‘가르침’, 3요인 ‘관심’, 4요인 ‘존중’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하위요인으로 나타난 개념을 바탕으로 유사점과 차이

표 8.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와 PBI와의 상관관계 ($n=388$)

한국적 양육행동	PBI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
불신	-.54***	.51***	-.57***
가르침	.44***	.01	.26***
관심	.68***	.05	.27***
존중	.60***	-.20***	.49***

*** $p < .001$.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모두 4 개씩의 하위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 하위 요인이 불신, 가르침, 존중, 관심이라는 개념으로 대표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에서 불신 요인과 가르침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은 내용면에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불신과 어머니의 불신,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가르침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갖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존중 요인과 관심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에서 존중 요인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대체로 아버지가 자녀의 감정과 의견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무조건적 이해가 아닌 이성적 판단이나 권위를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에서 존중 요인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과 의견을 이해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아버지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어머니의 권위를 바탕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자녀의 성품을 수용하며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즉 아버지의 존중을 ‘이성적 존중’이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어머니의 존중은 ‘수용적 존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에서 관심 요인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자녀가 어떻게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감독적 기능을 가진 관심과 밀접히 관련되었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에서 관심 요인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자녀의 하루 일과에 대해 살피고 자녀와 관련된 일을 잘 챙기며 자녀에게 마음을 쓰고 정성껏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이 애정적 측면의 관심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즉 아버지의 관심을 ‘감독적 관심’으로 본다면, 어머니의 관심은 ‘애정적 관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부모의 역할 면에서 논하여 보면,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일부는 공통의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아버지 역할 고유의 또는 어머니 역할 고유의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녀를 믿고 존중하며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인격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 양측의 공유된 역할이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권위와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현실적 가능성과 역량을 독려하는 역할은 아버지에게 보다 밀접히 관련되는 특성이고,

자녀의 품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주며 자녀를 애정으로 정성껏 돌보는 역할은 어머니에게 보다 두드러지게 관련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유하게 되지만, 수행하는 기능상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전통 가정의 부모 역할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과 가능성을 독려하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특성은 ‘엄한’ 아버지상과 관련되고, 자녀의 품성을 수용하고 자녀의 생활을 애정으로 정성껏 돌보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특성은 ‘자애로운’ 어머니상과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한국적 양육행동에서 나타난 부모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은 전통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부모 역할이었던 ‘엄부자모(嚴父慈母)’와도 일부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구의 양육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양육행동에서는 애정, 애착, 온정, 반응성, 수용성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의 지원’과 감독, 처벌, 심리적 통제, 애정 철회, 적대적 통제, 강압적 통제, 비밀관적 통제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의 통제’, 이 두 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Darling & Steinberg, 1993; Schaefer, 1965b 등). 여기서 부모의 지원은 자녀의 발달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었고, 부모의 통제는 연구에 따라 자녀의 발달과 긍정적으로도 또는 부정적으로도 관련되었다. 이와 비교해 살펴 볼 때, 한국적 양육행동에서 부모의 ‘관심’이나 ‘존중’은 지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부모의 ‘불신’은 자녀를 못 미더워 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생활에 간섭하여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통제의 개념과 일부 유사한 면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가르침’의 경우는 서구 양육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으로 지원의 축이나 통제의 축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와 Parker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PBI를 수정한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와의 관계 분석에서 가르침 요인이 PBI의 하위요인들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한국의 자녀양육에서 ‘가르침’은 전통적 자녀양육행동뿐 아니라 현대 가정의 양육에서도 핵심적인 차원이다. ‘가르침’이 기존의 국내 양육 연구에 전혀 포함되지 못한 원인의 일부는 정현희(1995) 등이 지적하였듯이 양육척도를 개발할 때 주로 서구의 양육행동 모형이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개인주의적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현대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나’ 의식이나 자율성, 개인적 유능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강조해 왔던 ‘우리’ 의식이나 의무와 책임의 공유, 남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를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인격교육을 등한시하게 되어 자녀 양육 연구에 있어 ‘가르침’의 중요성이 간과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부모자녀윤리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의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한국적 양육행동의 강점으로 서구의 양육행동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자녀교육에서 예(禮)의 실천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작된 한국적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현대 한국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지각을 토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각 측정함에 있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도구로 볼 수 있다.

둘째, 현대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불신, 존중, 가르침, 관심을 들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불신, 가르침, 관심, 존중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에서 ‘불신’과 ‘가르침’은 부모 모두에서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존중’의 경우, 아버지의 존중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을 존중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어머니의 존중에서는 자녀의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성품을 존중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또한 ‘관심’의 경우 아버지의 관심에서는 자녀의 일과에 대한 감독적 기능이 강조되고, 어머니의 관심에서는 자녀의 생활을 정성껏 돌보는 애정적 기능이 강조된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 측정도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한 목적에 국한해 측정도구의 문항을 일부 수정한 부모용 질문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보고하는 방식의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한국적 양육행동 예비문항을 이용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지각을 바탕으로 양육행동에 내재된 요인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우, 청소년의 지각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다른 방식으로 요인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각각의 지각을 바탕으로 구성된 요인들을 비교해 보며, 이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해 본다면 한국적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함에 있어 양육행동 변인과 청소년의 발달특성 변인과의 시간차 설계를 통해 한국적 양육행동 측정도구에 대한 예측타당도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양육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차원론적으로 접근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는 이들 한국적 양육행동 자료를 이용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해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 개발의 예비 작업에서 다루었으나 최종 개발 척도에 포함되지 못한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적인 구인들(희생, 관대, 수신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보는 것도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정현 (2002). 어머니의 정(情), 양육행동 및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순화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방희정 (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41-65.
- 유가호 (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 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 숙, 우희정, 김미란 (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3(1), 64-72.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미 (1992).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아불일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유미 (1999).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자아개념과의 관계. *교육연구*, 18, 79-103. *원광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호,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 (1996).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모색.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보고서*.
- 정현희 (1995). 세계화를 대비한 효의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토론. *한국아동학회 9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07-116.
- 최상진, 류승화 (1995).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 원천 탐색. *사회과학연구*, 8, 85-111.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수향 (1996).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비교문화 발달심리학을 위한 방법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집*, 59-79.
- 한중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령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151-162.
- Eccles, J. 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 M., Reuman, D., Flanagan, C., & Madver, D. (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i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in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8, 90-101.

- Hill, J. P. (1987). Research on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Past and prospect. In C. E. Erwin (Ed.), *Adolescent social behavior and health: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 37, pp. 13-31). San Francisco: Jossey-Bass.
- Kelley, M. W., & Tseng, H. M. (1992). Cultural differences in child rearing: A comparison of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 American mot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 444-455.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227-258).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during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110, 47-66.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52, 1-11.
- Schaefer, E. S. (1965a).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_____. (1965b).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pencer, M. B., & Dornbusch, S. M. (1990). Challenges in studying minority children. In S. S. Feldman & G. L.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123-14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Korean Parenting Inventory

JungHa Lim

Ock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n adolescent version of the Korean Parenting Inventory (KPI) from the indigenous perspective. The subjects were 780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Incheon and Kyunggi-do. The paternal data and the maternal data were analyzed respectively by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Based on theoretical and psychometric grounds, 30 items for paternal behaviors and 32 items for maternal behaviors were selected. The item discriminant coefficients, Cramer's V ranged from .29 to .76. And the four common factors of the Korean parenting were distrust, lessons, respect and attention. Moreover, the KPI's four common subscales had sufficient concurrent validity as well as construct validity and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split-half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The results provided initial support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PI.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Korean parenting, parental role, adolescent, inventory development